미국 코네티컷 주 EDAC(이닥)사 공장전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美 항공엔진 부품업체 인수
2022년까지 4兆 투자할 것

3500억 투자로 '이닥' 인수 마쳐
항공기 부품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500억원을 투자해 미국 항공엔진 부품업체를 인수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항공엔진 부품 전문업체인 'EDAC(이닥)'사의 지분 100% 인수계약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세부 인수금액은 앞으로 협의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약 3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예비입찰에 참여, 지난달 정밀실사 및 최종입찰 등을 거쳐 인수계약을 하게 됐다.

항공기 엔진 주요 부품인 일체식 로터블레이드 등을 생산하는 EDAC은 지난해 약 1억5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주요 고객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프랫&휘트니(P&W)등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P&W와 GE 등의 세계적 엔진제조사의 인접 거점에서 수주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 등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양한 제품의 고난이도 가공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등 사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더불어 향후 국제공동개발(RSP) 분야에서 탑-티어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설계·개발 및 기술역량 강화는 물론 미국 현지 사업 확대 플랫폼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이번 EDAC사 인수를 계기로 엔진부품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해 '항공기 엔진 글로벌 No.1 파트너'의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향후 항공엔진과 항공기계 등 첨단기술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 여객 수요와 물동량 증가 등 민간 항공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시장은 2025년 542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등 연간 6%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원을 투자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현대로템
현대車

수소전기열차 개발 맞손

수소전기트램·전동차·기관차 등
2020년까지 시제열차 완성 목표

현대로템이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개발을 본격화한다.

현대로템은 10일 현대차 마북연구소에서 현대차와 수소전기열차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현대차는 기술개발을 위한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며 현대로템은 수소전기열차 제작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와 차량 간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개발·검증한다. 현대차와 현대로템은 이번 MOU를 계기로 별도 기술협업조직을 구성해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전기열차는 물 이외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차선, 변전소 등의 급전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전력 인프라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로템이 올 1월부터 개발에 돌입한 수소전기열차는 저상형 트램 형태의 플랫폼으로 제작되며 수소 1회 충전에 최고속도 시속 70㎞, 최대 200㎞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제열차는 2020년까지 제작 완료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참가해 수소전기열차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현대로템은 현대차의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수소전기트램, 수소전기전동차, 수소전기기관차 등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세계 수소전기열차 잠재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규모로 향후 수소전기열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탄소배출제 시행으로 디젤철도차량의 대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현대차와의 협업으로 국내 최초 수소전기열차를 개발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축적된 노하우와 연구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수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을 비롯해 4차산업기술 기반의 스마트 트레인 기술개발 등 차량 시스템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철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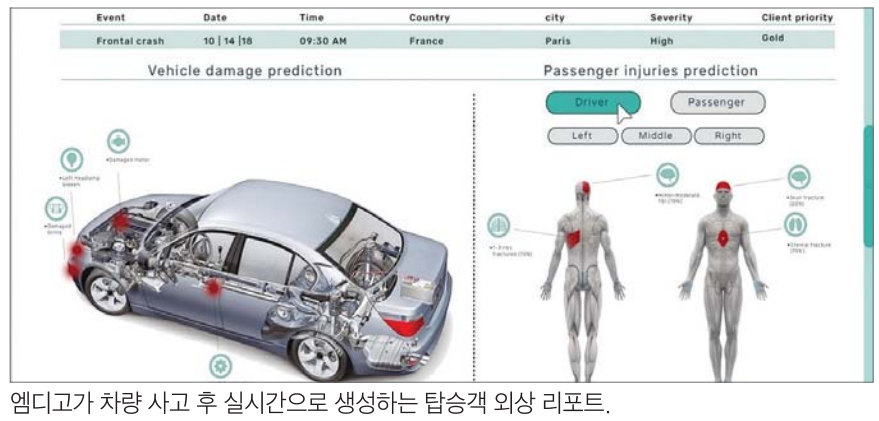
충돌 사고시 탑승객 부상 예측
현대車, 이스라엘 '엠디고'에 투자

엠디고 AI알고리즘으로 사고 분석
상해수준 따라 조기 의료 서비스

현대자동차가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손잡고 미래차 '의료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는 이스라엘의 차량 탑승객 외상 분석 전문 스타트업 엠디고(MDGo)에 전략투자하고 미래 커넥티드카용 의료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차량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부상 상황을 예측해 정확한 초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엠디고는 의학박사 출신인 이타이 벤가드 CEO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인 길라드 아브라시 CTO, 알고리즘 전문가 일라이 제라 R&D 담당이 2017년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정보 분석 분야 최고 전문 기업으로 꼽힌다.



엠디고가 차량 사고 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탑승객 외상 리포트.

엠디고의 독보적인 AI 알고리즘은 충돌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실시간으로 탑승객의 부상 위치 및 외상 심각도를 나타내주는 리포트를 생성한다. 이 리포트는 즉각 인근 병원과 환자를 이송할 구급차에 전달돼 사고 현장에서 최적의 응급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대차는 이번 엠디고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 차량에 최적화된 탑승객 외상 분석 기술 개발, 고객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4월경부터 현대차의 주요 차량 충돌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탑승객의 상해 수준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양성운 기자

"전국 백화점서 '비스포크' 구경하세요"

삼성전자, 18개 지점서 로드쇼 진행
신제품 체험·구매상담 부스 등 운영

삼성전자가 전국을 돌며 맞춤형 냉장고인 '비스포크'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7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전국 주요 백화점 18개 지점에서 비스포크 로드쇼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스포크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새로 내놓은 주문 제작형 제품이다. 8가지 제품 타입에 문짝마다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로드쇼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 현대백화점 대구점과 갤러리아 대전 타임월드점에서 운영중이며, 다른 지역 백화점에서도 추가로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로드쇼에서 신제품 체험과 구매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마술

삼성전자는 전국 백화점에서 비스포크 로드쇼를 열고 비스포크 냉장고를 소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이어갈 계획이다. 구매 고객을 위해서는 추가 사은품 등 풍성한 혜택도 마련했다. /김재웅 기자 juk@

기아車 "프랑스 여자월드컵을 응원합니다"

2019 FIFA 공식 후원사로 활동
선수단·VIP 등에 車 66대 제공

기아자동차는 오는 7월 7일까지 파리, 랭스, 몽펠리에 등을 비롯한 프랑스 주요 9개 도시에서 열리는 2019 FIFA(국제축구연맹) 프랑스 여자월드컵의 공식 후원사로 활동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대회 기간 각국 대표팀 선수단, VIP, 대회 관계자에게 스포티지, 옵티마(국내명 K5), 씨드, 니로 등 차량 66대를 제공한다. 또 FIFA와 연계해 공식 유스 프로그램인 기아 오피셜 매치볼 캐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는 월드컵 대회에서 공인구를 심판에게 전달해 줄 52명의 어린이 요원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기아차는 티켓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해 기아차 시승 고객, 실구매 고객, 축구 클럽 고객, 이벤트 당첨 고객 등을 대상으로 여자 월드컵 경기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9 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 파리 경기장에 설치된 기아차 부스의 모습

한편 기아차는 2007년부터 FIFA의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18년부터 유로파리그를 후원하는 등 최고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 축구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양성운 기자